크레이그 키너 박사 , 로마서, 강의 7,
로마서 5:12-6 : 23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7, 로마서 5:12-6:23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했는데, 이는 아마도 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성경에 근거하여 구원이 믿음을 통해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5장 12절, 8장, 39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성령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전 1:17부터 5:11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여 의롭게 됨. 5:12부터 8:39,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새 생명, 5:12부터 6:11, 영의 내주, 8:1부터 39. 그는 또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변화를 받아 참된 의를 이루지 않으면 율법에 대한 지식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5:12부터 5:21까지의 입장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섹션으로 가나요, 아니면 나중 섹션으로 가나요? 로마서 5장은 칭의에 관한 부분인 1:16부터 4:25까지 들어가나요, 아니면 로마서 5장은 생명에 관한 부분인 6.1부터 8:39까지 들어가나요? 나는 5장 1절이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담으로의 전환이 있고 6장의 새 생명은 로마서 6장 6절의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사람과 반대된다고 믿습니다. , 이것은 5:12부터 21까지 흐르며 아담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봅니다. 5:1부터 11까지는 1.16부터 5:11까지입니다. 5:12부터 21까지는 5:12부터 8:39까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좋은 방법으로 주장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디를 나누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것이 다른 섹션이 아닌 특정 섹션과 어울리는지, 특정 용어의 반복 등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5:12부터 21.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4장에서 바울이 언급해야 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5:12-21). 여기서는 개인의 결속력을 식별하는 유전적 요인보다 선택의 행동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 관해서는, 음,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6장 3절).

그러므로 당신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처럼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조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느니라, 5:12. 그리스도께서는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특히 18절과 19절에서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hospere 와 같이 결코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계획된 대조를 암시하며 그는 그 둘 사이에 대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문법과 5:12의 마지막 절에 대해 큰 논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후손들이 그로 인해

죄를 지었고 그의 죄책이 그들에게 유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 번역에 달려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어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모르지만 어거스틴은 그리스어를 몰랐습니다. 그는 라틴어 번역에 의존했고, 이것은 그의 말년에 있었습니다.

Theodoret) 와 같은 그리스 조상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과 대조했습니다 . 따라서 이것이 부모에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라는 생각은 아마도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요점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인류에게 퍼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NASB, NRSV, TNIV 등에서는 이것이 번역된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시작하며 따라서 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 4서, 바룩 2서에서 나온 유대인 문서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 각자는 그의 죄를 복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와 죄책을 물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태어났고, 우리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5.13과 14에는 법에 대한 여담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정죄 기능, 즉 의로운 표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5:13). 당신은 4장 15절과 5장 20절에서 그것이 정죄하는 기능 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7장,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율법과 사망의 연결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은 율법(5장 14절) 이전에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구약성서 초기에 분명했고 오늘날 고고학적 유물과 고생물학 및 기타 모든 것에서도 분명합니다.

죽음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법은 단순히 그것을 계산하거나 계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5:13. 모세의 율법은 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완전한 계시를 주기 때문에 자연법보다 더 까다롭습니다(2:12-15). 음, 5:14, 어떤 사람들은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도 유아에 관해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아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대 그리스도 15절부터 20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수사학적 대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에 관한 유대인의 전통. 아담은 인류를 위한 최초의 형성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하기 전에도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23,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큰 영광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찬란한 광채가 그 주위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이 된 랍비들은 그분이 거대하고 땅에 가득하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자녀를 다 낳아야 할 것이 아니었으나 이 모든 사람의 근원인 아담은 실로 모든 사람과 같이 컸더라. 그러나 그것은 후기 전통이며 아마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광을 잃었고, 회복은 또 다른 아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2 및 45~49. 바울이 새로운 아담이나 아담의 역전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한 구약의 선례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흥미롭네요.

창세기나 창세기의 이 부분의 구조를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각각 10세대로 구분하는 두 개의 족보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대략 세 아들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행한 구조가 있습니다.

축복도 있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 연관성은 아담과 노아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한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나 노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네가 네 자손을 가르쳐 나를 따르게 할 것을 내가 안다 하심이라. 그분은 낙원을 향한 발걸음,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회복을 향한 발걸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특별한 약속의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실제로 일부 해석가, 예를 들어 필로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유대인 해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의 첫 사람이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사람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그래서 그들은 첫 사람이 둘째 사람보다 크다고 말한 반면, 바울은 둘째 사람이 첫 사람보다 크다고 말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의 두 인물을 대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그리스도는 처음보다 더 크시리라 하였느니라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수사법은 정말 아름다운 수사법입니다. 바울이 수사학 용어를 알든 모르든 그는 분명히 이 일을 잘했습니다. 비교 또는 동기화 에서는 두 개체를 비교하고 Paul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종종 하나씩 비교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몇 구절에 걸쳐 수사적으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5:15a에서 볼 수 있듯이 객체는 동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비교는 등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것들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쌍대립은 요점의 일부를 이끌어냅니다.

즉, 서로 대조되는 쌍이 있습니다. 좋은 수사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에서는 카바 오메르(Kava Omer)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해석 원칙이었습니다. Kava Omer 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해석 원리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서 둘째 사람의 우월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이 아이디어의 일부입니다. 그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짝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훨씬 더 크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도 죄와 죽음이 의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부들 중 일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은 친숙한 수사적 기법이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6번 나오는 용어는 불행하게도 행복한 용어가 아니라 per optima입니다. 이것이 범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4장과 2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는 솔로몬의 지혜서 10장 1절에서 아담의 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세기에 그리고 아마도 1세기에 상당히 널리 유포된 헬레니즘 유대인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1세기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지만, 나는 이 단어가 이미 바울에 의해 여러 번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과 같은 그의 환상을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이미 충분히 널리 유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최적의 상태로 4:25를 언급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범법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5:18에서 그는 또 다른 핵심 용어인 디카이오시스(dikaiosis)를 반복합니다 .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범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4장 24절과 25절에서 복음 요약의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요약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우월하시다. 따라서 바울은 은혜와 거저 주시는 선물의 언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5:15부터 17절까지 8번, 5:20과 21절에 2번 나옵니다.

그는 의에 대해 말하지만 여기서는 얻은 의가 아니라 주어진 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의를 살아야 합니다. 5:17, 죽음의 통치와 신자들의 통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국을 받게 될 종말론적 왕국(다니엘 7:22)을 가리킬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잃었던 역할을 다시 되찾은 맥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8장 29절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아담의 맥락에 대한 암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렇게 분명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17절, 18절, 21절에서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가올 시대의 부활 생명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2장 7절, 4장 17절, 5장 10절, 6장 10절, 22절, 23절, 8장 11절, 13절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5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일방적인 대조를 더 많이 전개한다. 아담의 범법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의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며 아담을 육신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6장 3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영으로 그분께 의존합니다(8:1-11).

바울은 여기서 평행법에 기초하여 일부 사람들이 발전시킨 개념인 보편주의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병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방식입니다. 그는 2:5, 9:22, 빌립보서 3:19, 데살로니가전서 5:3에서 일부 사람들의 종말론적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맥에 따라 아담과 그리스도가 그들 각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정됩니다.

의롭다 함의 미래시제는 이것의 완성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됨을 암시한다. 18절과 19절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뒤집는 예수님의 순종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5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본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성을 추구하는 아담과 대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창세기 3장 5절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받은 형벌을 단순히 뒤집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 29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29절은 미래에 완성될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위해 더 큰 삶을 추구했으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에 복종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와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순종과의 결속에서 나오는 참된 의를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Paul이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의 관점 중 하나를 취하여 다른 모든 관점에 적용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며 우리는 그 모두를 축하해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언급하지만.

5장 20절의 의로운 율법은 죄를 정죄에 노출시킵니다. 5:20과 5:13, 율법은 아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의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6:15, 7:12, 7:14, 7:16, 7:22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합니다(6:14, 7:5, 7:8-9). 그는 다른 곳에서 율법이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7:12). 그러나 율법은 변형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5장 20절에서 그는 율법이 단지 당신의 죄를 드러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죄책감으로 만듭니다. 물론, 그것이 영에 의해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언약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요 차이점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이 깨뜨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너희로 내 길로 걷는 것.

그러므로 율법은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2:29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레미야 31:33을 반영하여 7:6과 8:2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8장 3절에서 그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개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8장 3절).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조의 절정(20절과 21절)은 죄가 클수록 그것을 헤아리는 은혜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는 엄청난 대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사고에서 세상을 배열하는 전체 이분법일 뿐입니다. 아담의 범법은 심판과 정죄로 이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칭의, 무죄로 많은 범죄가 그것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아담의 범법은 죽음의 통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5장 18절에서 정죄로 이어졌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즉 그분의 순종적인 죽음은 같은 구절에서 칭의와 삶의 무죄로 이어집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 특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5:19.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였느니라, 5.20. 그러나 은혜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5.20.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였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

그는 6장 14절과 6장 15절에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합니다. 죄는 사망으로 인도한다, 6:16 순종은 의에 이르게 합니다(6:16). 6:17의 죄의 종. 가르침에 순종함, 6:17 죄의 종이며 의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것과 대조되는 것은 의의 종이며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드리는 것은 불법에 이르느니라, 6:19. 자기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라(6:19). 6:22에서 6:23의 죽음, 같은 구절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전 배우자에 대한 죽음, 7:3과 4의 율법. 7:4의 그리스도와 결혼. 육체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몸에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7:5)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7:4. 7장 6절에서 율법에서 풀려나고 율법에 죽었습니다. 그는 7장 6절에서 그 문자의 오래됨을 말하며 아마도 6장 6절에서는 옛 인성을 연상시키는 것 같다. 7.6의 영의 새로움, 아마도 6.4의 삶의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8:2 같은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8:3부터 9절까지에서 육신과 영을 대조합니다. 육신적인 관점은 사망입니다(8:6). 영의 관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의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6.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8:10. 하나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느니라, 8:10.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몸의 행실, 곧 몸의 죄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8:13. 그는 8장 15절의 종살이의 영과 8장 15절의 양자의 영을 대조합니다. 바울이 일련의 대조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나는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며 매번 명시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저는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의 사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음, 5장 12절, 15절, 17절, 21절입니다. , 그는 아담의 죄가 어떻게 죽음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단번에 경험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당하기로 되어 있던 아담의 죽음이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18절, 19절).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인류 안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6:3,4). 그리하여 새로운 기업 정체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6장의 몇 가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기서 바울의 복음, 즉 바울이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의를 말합니다.

글쎄요, 그 언어는 때로는 법의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법의학적인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치오스네는 정당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 무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정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감정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이미 특정 종류의 행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신학에 따르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에게서 나온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능력, 성령의 은사, 사역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바울 신학의 전적으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과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인해 알았어야 했고, 자신이 받은 것을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유대교의 개종. 당신이 개종했다면, 즉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디아빔 왕처럼 어떤 이방인들을 예외로 두기도 했습니다 . 그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요, 그건 아마도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언약의 정회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할례는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이미 회심의 그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의 개종을 위해 기대되었던 또 다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 이방인 생활의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의식적 정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원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양한 의식적 정욕을 가졌습니다.

Essenes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목욕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류 유대교에서는 정기적인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mikvah, mikvahot을 가졌습니다 . 이것은 여러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몸을 담그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침수 풀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일은 흐르는 물이나 일종의 생수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은 원래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빗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크바(mikvah), 즉 이 웅덩이라면, 길은 물이 아니고, 배로 운반되지 않은 물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음, 저수조, 물 탱크를 가질 수 있고 그 물 탱크에서 이 미크바까지 연결되는 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싶지 않을 때 물이 흐르지 않도록 거기에 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때때로 이 미크바호트는 정말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산 근처 예루살렘 위쪽 성에 사는 대제사장인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집에는 종종 의식용 침수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의식적 침수 수영장에 들어간 후에 몸을 씻는 데 필요한 어떤 종류의 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어쨌든 유대 전역에서 우리는 이것이 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침수 웅덩이 말입니다. 자, 그것은 일반적인 종류의 세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청중에게 기대한 것과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기대하신 것과 같이 단번에 씻는 것, 즉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습니까? 글쎄, 우리는 유대교에서 입증된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Mishneh 는 여러 곳에서 입증되었습니다. Pesachim 8, 8 그리고 그것은 Tosefta 등에서 입증되었습니다 . 사람들은 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다른 것들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방인인 것에서도 정결케 되어야만 했을 것이라는 논리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전에 우상 숭배자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랍비 자료는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랍비 자료입니다.

그리고 랍비 자료는 고대 유대교에 대한 가장 풍부한 자료를 보유한 출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몇 가지 초기 출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Epictetus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의 풍자가인 유베날리스도 아마도 이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잠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아스포라에 알려졌습니다. 할례만큼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는 행위로 이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이 일을 맡게 되었는지,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이 일을 맡게 하신 이유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분은 추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이 세례를 행했다는 점에서 예수의 초기 움직임을 특징짓는 것 같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아마도 성전산에 있는 Mikveh Ot에서도 이런 일이 행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요르단에서 남녀공학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랍비들은 만약 당신의 치아 사이에 콩줄이 끼어 있다면 불행하게도 저는 이 직전에 이를 닦지 않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의는 하는데, 치아 사이에 콩알 정도가 끼어 있으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몰입이 무효가 됩니다. 어쨌든, 아마도 성별이 혼합된 장소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은 개종이 민족적 충성심과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변화시켰다고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때때로 유대인들이 개종자를 만들고 그들이 이방인의 관점에서도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에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반적인 유대인 개종자 세례를 통해 단지 유대인 공동체와 연대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기독교 세례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경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세례를 받았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 즉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세례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음행,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회심의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이해되는 공동의 기업 경험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연대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됩니다. 유월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 예식을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에 그것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비유적인 의미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큰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이 영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회심의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환에 대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러 가던 중에 순교를 당했다면 회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약혼반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내 아내가 된 약혼자 와 약혼했을 때 나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당시 우리가 같은 나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상 다소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난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반지를 보고 싶어요.

세례는 약혼반지와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헌신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하는 것은 세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이것이 침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글쎄,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초기에는 몰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개종을 위한 유대인의 관행이었고, 아마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이 기독교의 관행이기도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2세대 개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 중에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은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나요? 그것은 실제로 다음 세대에서 제기된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찾기는 하지만 신약성서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학자로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초기 문서인 디다케(Didache)가 있는데, 이상적인 것은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물을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 중 일부는 이 문제와 씨름했고 그 요점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이 생기면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일찍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 은 자신의

개인적 신앙을 소유하고 그것을 세례로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맡겨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신약성서에 근거한 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기서 다루는 것들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점은 이러한 회심의 행위, 즉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옛 사람인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모습(6장과 6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6장과 4절)에서 생명의 새로움, 즉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요.

나중에 랍비들은 세례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것은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예보모스 46장과 47장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종이 더 이상 그 종의 주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전의 관계를 해체했습니다. 따라서 노예를 개종시킨 유대인 주인들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결박 속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도 그들은 여전히 속박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의 하인입니다. 그것은 유대교로 개종하면 새 사람처럼 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흥미로운 조정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섯 살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여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장의 초반에 제기한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어쩌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리요? 그는 5장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와 함께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 믿음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토아학파가 말했듯이 새로운 철학적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그리하여 새로운 철학적 관점에서 전체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인지치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는 달리 스토아학파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우리의 자아상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글쎄요, 유대 사상에 있는 이 새로운 정체성, 유대 사람들은 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사악한 충동, 곧 예찌라가 심판 날에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대 사람들도 심판 날에 죄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종말론적으로 죄는 멸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약속된 메시아, 이 약속된 부활, 이 약속된 미래의 왕국은 약속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역사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왕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연대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아직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과 11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합은 어떤 신비주의 사상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점에서 연합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이 흔히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의 긴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표는 우리가 무엇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직설법 대 명령법이라고 말합니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봅니다.

다시 8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5장 6절의 계산 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계정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습니다. 계산하다라는 단어는 로마서 4장에 11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계산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과 일치하는 관점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단순히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주석가인 오리진(Origin)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여자에 대한 정욕이 나를 사로잡았거나 은이나 금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를 감동시켜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 정욕은 즉시 소멸되고 죄는 사라지느니라. 믿음으로. 이것은 Gerald Bray의 번역입니다. 계속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사상은 6장 6절에 소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12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가들은 거짓 사상의 노예, 열정의 노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노예 등을 말했습니다. 유대 사상가들은 자유함을 말할 때 사람들의 정치적 해방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죄로부터의 해방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완전한 종말론적 해방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예 해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대 문헌을 통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Adolf Deissmann 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누군가가 특정 노예 소유자로부터 해방되어 사원 봉사에 팔리는 성례전의 아이디어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여기의 배경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배경으로 보는 문제는 그것이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고 Paul이 그렇게 좁은 것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보다 일반적인 생각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노예 해방이 로마에서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예 해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해했습니다. 해방된 로마 시민의 노예는 30세 이상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스스로 로마 시민이 되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때때로 로마 노예 소유자는 나이 많은 노예를 부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로마 노예 소유주들이 그들의 가족 노예의 절반, 또는 가족 노예의 절반 정도를 해방시켰을 수도 있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자유로워질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대륙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남북 전쟁 전에 실제로 노예의 10분의 1 미만이 해방되었습니다. 노예와 노예 소유자 사이에는 상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 노예 소유자를 위해 특정 일을 수행할 것이며, 노예 소유자는 해방된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해방된 자로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평범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소유자가 암살되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밝혀 지지 않고 노예 중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어지면 모든 노예가 죽고 해방된 사람들도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전히 인연이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의무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특히 20세기 초에 신비종교와 죽고 부활하는 신들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죽어가는 신들과 부활하는 신들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예수처럼 죽고 부활하는 것은 아닌 일부 신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정확히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절에 따른 부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화는 봄의 새로운 삶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신들로 추정되는 많은 신화는 실제로 기독교가 확산된 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후기 교부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기독교에서 요소를 빌렸는데, 기독교는 그들이 이것을 생각해냈을 때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죽고 부활한 신들에 대한 몇 가지 초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들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시대에는 그다지 잘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부활의 언어, 부활을 묘사하는 그의 방식인 다니엘 12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고전 15:20).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종종 헬라어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언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맥락에서 부활은 몸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계절에 따른 자연의 부활이나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의 그러한 견해가 현재 그다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인터넷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3절에서 그는 죄의 삯인 사망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영생을 대조합니다. 임금이라는 용어는 종종 군사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3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라고 말하는 곳에서 하플라(hapla) 라는 용어가 갑옷이나 무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무기로 드리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나중에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가 군사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임금을 뜻하는 군사용어이다.

그러나 노예 제도의 맥락에서 노예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큘리움(peculium)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앞서 그들이 그것으로 그들 자신의 자유를 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정말로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좋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가구 관리자였든 뭐든 간에요. 이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읽은 노예 제도와는 매우 다릅니다. 때로는 노예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의 대조, 그리고 4장 4절의 그것과 적용되는 대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품삯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의 대조는 은사입니다. 무료 선물입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사은품에 대해 생각할 때 은인에 대해 생각했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리스어에서 카리스(charis)는 은혜, 자선, 은사를 의미할 수 있으며,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6장은 따라가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7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에 대해 종종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날에는 소수의 견해와 반대되는 다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큰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로마서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7, 로마서 5:12-6:23입니다.